2026.10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54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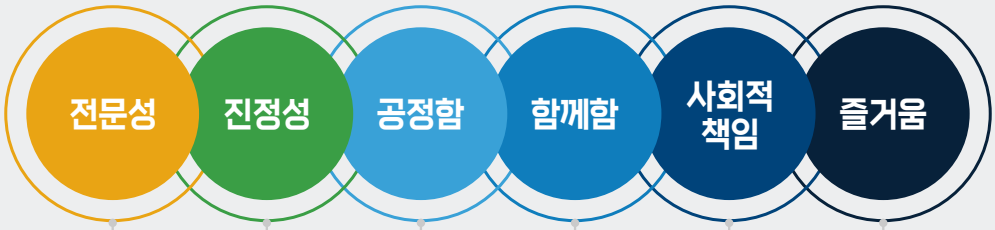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비전 2030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핵심가치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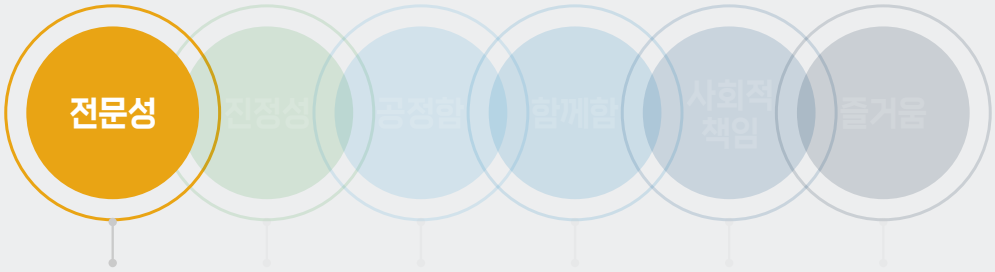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 내시경
· 내분비 · 심장
민 면 역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사람을 보며 온 길, 함께 갈 온길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 출범 및 개원 15주년 기념식 (10.30)



10월 30일 아침, 개원 15주년과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 후문 입구에서 개식 선언과 테이프 커팅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1층 로비에서는 지난 15년을 돌아보는 기념사와 함께 현판 제막식, 풍선 세리머니, 기념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후에는 직원들과 기념떡을 나누며 아침을 마무리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원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함께 웃고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채워온 직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의료법인 온길의료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합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온 길, 함께 갈 온길.

지난 15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온길도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국제학술지 THYROID 게재 논문

석회가 있는 갑상선 미세유두암, 고주파 치료 결과 논문 발표 (10.21)



THYROID
Volume 00, Number 00, 2026
Mary Ann Liebert, A Part of Sage
© The Author(s)
DOI: 10.1177/10507256261494905

Radiofrequency Ablation of Calcified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Long-Term Imaging Evolution and Clinical Outcomes

So Yeong Jeong,[1] Sun Mi Baek,[2] Suyoung Shin,[2] Hyunsoo Kim,[2] Young Hwa Suh,[2] and Jung Hwan Baek[3]

우리 병원 갑상선센터의 고주파 치료 연구가 미국갑상선학회 공식 학술지 『THYROID』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석회화를 동반한 갑상선 미세유두암의 고주파 절제술: 장기 영상 변화와 임상 결과」이며, 갑상선암에 동반된 석회가 고주파 치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세계적으로도 처음에 해당합니다.

이 연구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소영 교수님이 1저자로, 서울아산병원 백정환 교수님과 백선미 병원장님이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하였고, 저희 병원 신수영 센터장님, 김현수 부장님, 서영화 과장님도 함께했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을 비롯한 연구팀과 갑유센터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구요.

이 연구는 수년 동안 빠짐없이 정기 검진에 와 주신 환자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초음파 기록이 모여, 이제 다른 환자분들의 불안을 덜어 드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립 북부병원 김동구 부장님

재활의료 초청간담회 (10.15)

10월 15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서울시립 북부병원 김동구 부장님을 초청하여 척수통합재활센터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척수손상 당사자이자 의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동구 부장님과 우리 병원 재활의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척수손상 환자들의 더 나은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온길의료재단이 설립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공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척수통합재활센터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척수손상 당사자의 시선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관점을 함께 가진 김동구 부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척수손상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활의료와 지원 방향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중도장애인의 삶을 잇는 전환지원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 (10.08)

지난 10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대식·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전환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2017년부터 운영해 온 당사자 재활코치 제도와 나눔으로행복한동행의 ‘전환홈’ 운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장애 경험을 가진 재활코치의 역할과 퇴원 전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전환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활코치 직무의 제도화와 건강보험 수가 마련, 표준교육 및 공인 자격제도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전환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준비, 함께하는 실천

해운대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10.20)



28일 오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대피를 위한 해운대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전한 대피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사전 모의훈련을 시작으로, 2시부터 5병동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화재 신고 및 피난·대피 유도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소방대 도착에 따른 현장 안내와 합동 진화 작업을 통해 각자의 역할과 대응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이후 9층 소망정원으로 장소를 옮겨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진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절차를 익히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한 자위소방대의 역할과 협조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일상재활센터(낫병동)
9월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10.02)







"사랑하는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출석왕 신○열 님

"재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석왕 서○용 님

"포인트로 전동 손톱깍기 구매해서 손톱을 깍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자립왕 박○수 님

"같이 와주는 아들과 동생 감사합니다"

자립왕 강○희 님

꾸준한 발걸음과 작은 도전이 만들어 낸 소중한 변화!

일상재활센터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재활에 참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늘려가며 성장해 온 참여자분들을 격려하는 '출석왕·자립왕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센터를 찾아 재활에 힘쓰는 꾸준함, 익숙하지 않은 일에도 용기 내어 도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이뤄낸 값진 성취이기도 하니깐요.

9월의 출석왕·자립왕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일상재활센터는 참여자분들의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함께 기뻐하며, 더 넓은 일상과 자립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휠체어스쿨 (10.12)

이번 시간에는 휠체어스쿨에서 배운 기술을 실전에 적용해 보기 위해 참여자 세 분과 함께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인근 산책길을 다녀왔습니다.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이날은 다소 습하고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더운 날씨였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답답함과 무료함을 느끼셨던 신규 참여자 황OO님은 오랜만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니 기분전환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여자마다 체력과 이동 속도가 달라 중간중간 쉬어 가시는 분도 있었고, 조금 더 멀리 이동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산책을 이어가며 큰 어려움 없이 수업 시간에 배운 휠체어 조작 기술을 실제 야외 환경에서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산책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야외에서 휠체어를 조작하며 자신의 강점과 부족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연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병원 밖의 새로운 환경에서 바깥바람을 쐬며 기분전환도 하고, 배운 기술을 실전에 적용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슬기로운재활생활 (10.14)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재활코치팀 서인석 주무)



슬기로운 재활생활 여섯 번째 시간에는 참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공학기기 및 지역사회자원안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활코치팀 서인석 선생님께서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리프트, 장애인 차량 대여 등 이동 관련 보조기기를 비롯해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자동차 보조기기까지 폭넓게 안내해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환경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닌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사회자원 안내 및 주거환경개선(사회사업팀 이하늘 팀원)



서인석 선생님의 강의에 이어 사회사업팀 이하늘 선생님께서 참여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주거, 돌봄, 이동,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국가보장제도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처음 듣는 제도에 대해서는 귀기울려 듣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의 첫걸음, 가정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공유함으로써 준비된 퇴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 모두 지역사회자원과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활용해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가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재활 2팀과 사회사업팀이 함께하는

그룹치료 프로그램 (10.17)







재활2팀과 사회사업팀이 함께하는 그룹치료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나만의 텀블러 꾸미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으로 확대된 사진을 보고 어떤 사물이나 음식인지 맞히는 '이게 무엇일까요?' 퀴즈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사진 속 단서를 유심히 살펴보며 정답을 추측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자연스럽게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전사지 스티커를 활용해 자신만의 텀블러를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담을 수 있는 스티커를 신중하게 고르고 텀블러에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하며 정성스럽게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완성된 텀블러를 서로에게 보여주며 "예쁘다", "멋있다"고 칭찬을 나누는 등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격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태극기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스티커를 선택한 참여자의 작품에는 "애국심이 넘쳐난다", "정말 멋있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자신만의 텀블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집중력을 발휘하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칭찬과 긍정적인 반응을 주고받으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참여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2팀과 사회사업팀은 참여자들이 즐거운 활동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룹치료 프로그램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10.10)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일정은 11월 7일(토) 오후 3시 30분, 7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6년 3분기 근접오류 보고 우수 부서 선정!

★★★

2026년 3분기 최고의 환자 안전 지킴이

8층 생활재활센터



근접오류 보고 TOP4



8층 생활재활센터	11건
7층 생활재활센터	8건
재활치료1팀	3건
재활치료2팀	2건

근접오류는 비난이 아닌 배움의 기회입니다.
환자 안전도 지키고! 포상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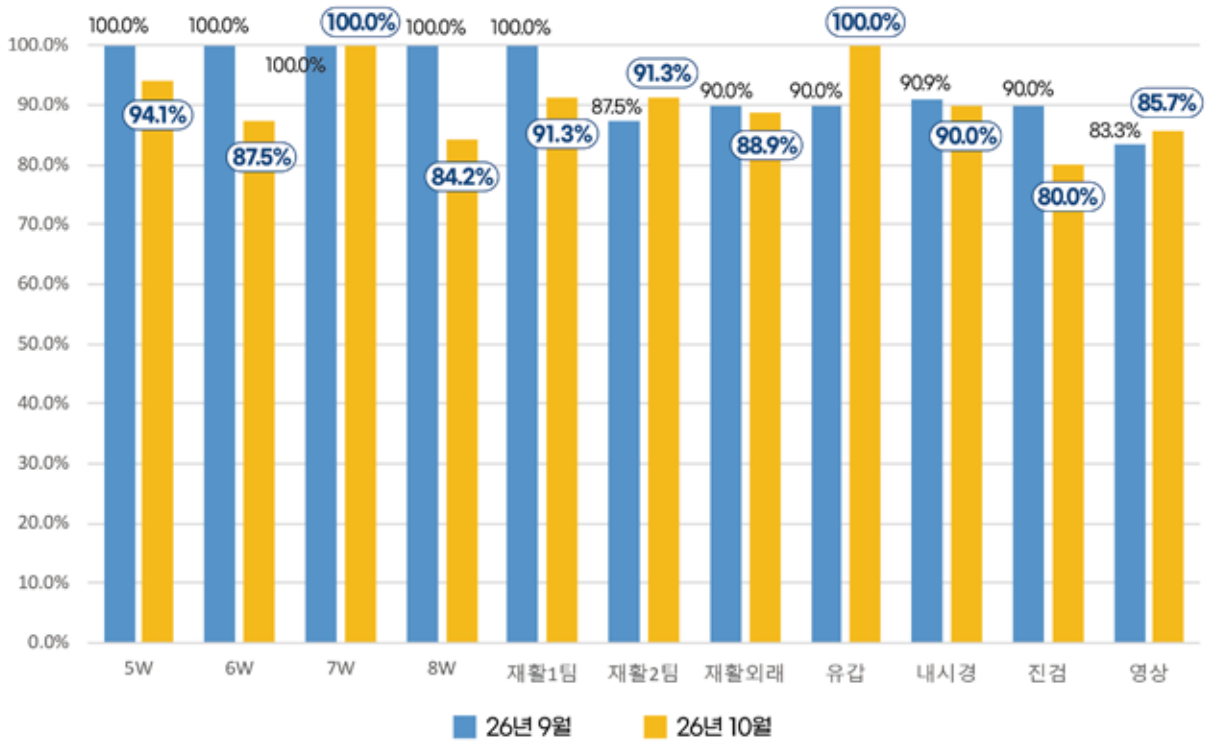
2026년 10월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6년 9월 결과와 비교 분석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58	143	90.5%	-4.8%

10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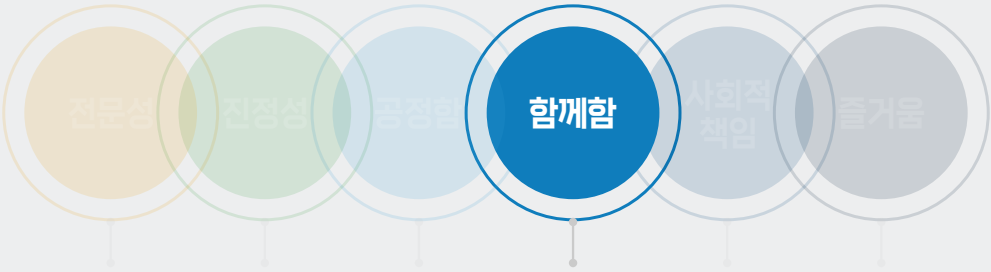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축하드립니다
10년 장기근속포상 대상자



심사팀
김 태 연 팀장



영양팀
김 화 숙 주무



원무팀
오 상 헌 파트장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 지 혜 팀장



재활간호팀(일상재활)
임 주 영 부파트장



재활간호팀(7W)
선 종 진 주무



재활간호팀(8W)
성 철 성 파트장



재활치료1팀
강 동 혁 부파트장



재활치료1팀
김 규 하 주무



재활치료1팀
유 요 한 주무



재활치료1팀
임 예 슬 주무



재활치료1팀
권 윤 경 주무



갑상선유방팀
정 세 경 팀장



건강증진팀
김 수 정 파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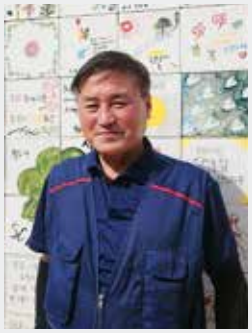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축하드립니다
5년 장기근속포상 대상자



시설팀
박 선 영 팀원



시설팀
이 영 인 파트장



영양팀
이 복 자 팀원



영양팀
오 해 린 주무







전산팀
박 구 봉 부팀장



법인사무처
박 선 미 사무처장



가정의학팀
이 혜 영 팀원



갑상선유방팀
조 정 아 주무



갑상선유방팀
박 소 은 팀원



영양팀
김 경 림 팀원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축하드립니다
5년 장기근속포상 대상자



사회사업팀
이 하 늘 팀원



재활간호팀(일상재활)
유 민 지 팀원



재활간호팀(5W)
권 혁 래 팀원



재활간호팀(일상재활)
한 혜 지 팀원







재활간호팀(5W)
박 미 화 팀원



재활간호팀(6W)
정 소 진 부파트장



재활간호팀(5W)
이 영 주 팀원



재활간호팀(8W)
이 민 경 팀원



재활간호팀(8W)
예 나 경 주무



재활코치팀
권 진 태 주무



감염관리팀
최 은 미 주무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축하드립니다
5년 장기근속포상 대상자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
강 명 승 부파트장



재활치료1팀
신 유 라 팀원



재활치료1팀
서 대 원 팀원



재활치료1팀
여 승 준 팀원







재활치료1팀
박 시 영 팀원



재활치료1팀
장 수 윤 팀원



재활치료1팀
김 소 연 팀원



재활치료2팀
김 종 태 부팀장



재활치료2팀
이 선 명 파트장



재활치료2팀
최 지 용 파트장



재활치료2팀
탁 현 우 주무



재활치료2팀
박 소 민 주무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가족입니다.
10월의 신규입사자



경영지원실
유 동 민 실장



재활간호팀(7W)
최 민 주 간호사



영상의학과
김 연 정 과장



감상선유방팀
이 윤 설 간호조무사



영상의학팀
오 현 정 방사선사



재활간호팀(5W)
박 근 형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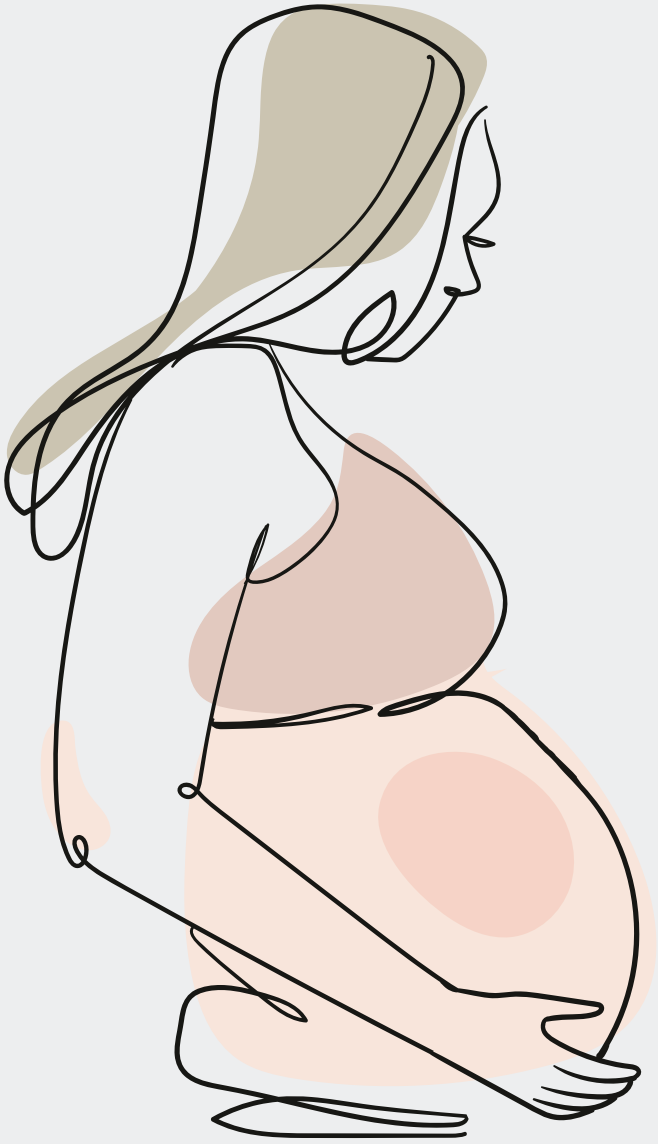


재활간호팀(5W)
이 효 빈 간호사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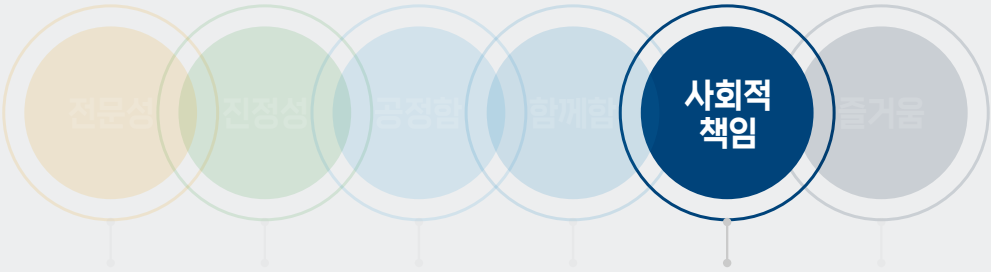
재활1팀 이승은 주무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 전달식 (10.08)

신OO님은 3인 가구로 참여자는 현재 소득이 없으며 부모님 또한 고령으로 가구 소득이 적어 치료비 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참여자의 재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젊은 나이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치료비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용 서비스 (10.20 / 10.23)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74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16명이 함께 들려준 이야기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 2026년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매일 출근하는 우리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힘이 되는 응원, 이건 바꾸면 좋겠다는 제안,
동료들의 솔직한 고충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316명의 소중한 목소리로,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직무만족도 조사는 왜 진행했을까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매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무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례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1.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핍니다. 부서와 직종을 넘어 해나행인들의 직무 몰입도와 만족감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해나행의 꾸준한 성장과 의료법인으로 바뀌는 변화속에서 직원들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량 데이터로 꾸준히 확인하겠습니다.

2.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답답한 걸림돌'을 찾아냅니다. 구성원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구체적인 병목지점을 짚어내 개선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3. 말에 그치지 않고, 진짜 바꿔야 할 제도와 관행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제안을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찾아 실행하고, 업무개선의 아이디어도 수렴합니다.

2026년 직무만족도 조사 한눈에 보기

- 조사 기간: 2026년 9월 3일(목) ~ 9월 9일(수) (7일간)
- 참여 대상: 병원 전 직원 396명
- 응답률: 80.0% 달성! (총 316명 응답)
- 설문 구성: 7대 영역 49개 객관식 문항 + 주관식 심층 질문(Stop, Start, Continue, Change)

결과① 7대 영역별 만족도

'협업(81.4점)'과 '경영신뢰(79.8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나행의 가장 큰 강점인 '서로 배려하고 먼저 인사하는 문화', '수평적 협력 분위기', '참여자(환자) 중심의 의료 철학'에 대한 직원들의 깊은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반면 '평가 및 보상(61.3점)'과 '업무효율성(66.1점)'은 60점대 초중반에 머물렀습니다. 병원 규모가 성장하고 법인 전환 후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부서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와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순위	질문 영역	질문갯수	100점 환산점수
1	부서 간 협업 및 소통	질문 33~37 (5문항)	81.4점
2	미션 및 경영신뢰	질문 1~5 (5문항)	79.8점
3	직무 의미 및 몰입	질문 6~11 (6문항)	77.2점
4	리더십 및 코칭	질문 19~26 (8문항)	73.5점
5	교육 및 복지제도	질문 12~18 (7문항)	68.6점
6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질문 27~32 (6문항)	66.1점
7	평가 및 합리적 보상	질문 39~50 (12문항)	61.3점

결과② 최고의 강점 TOP 5

참여자를 대할 때도 동료를 대할 때도 변함없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람 중심의 미션이 우리 병원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전 직원이 고르게 나누는 성과급 제도와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및 연차 사용 문화 역시 사기를 북돋우는 핵심 원동력으로 꼽혔습니다.

순위	문항명 및 핵심 내용	소속/영역	100점 환산점	현장의 생생한 코멘트
1	동료 간 상호존중과 협력적 분위기 (부서 안팎의 배려와 협력 문화)	협업	85.6점	“병원들에 흔히 있는 위계중심의 문화가 없고, 먼저 다정하게 인사해 주셔서 적응하기 편했습니다.”
2	병원의 미션과 사람 중심 철학 공감 (참여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방향성)	경영 신뢰	84.1점	“수익만 좇지 않고 환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돕는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3	전 직원 균등 성과급 나눔 제도 (병원의 성장을 직급 차별 없이 나누는 제도)	경영 신뢰	83.5점	“골고루 성과를 나누는 문화에서 모두의 성과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좋습니다.”
4	치료·간호·지원 직무에 대한 자부심 (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가치)	직무 몰입	82.0점	“환자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전문가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5	자유로운 연차 및 육아 친화적 제도 (자유로운 연차 사용과 단축근무 지원)	교육·복지	81.8점	“연차 사용 시 눈치를 주지 않고, 육아기 단축근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결과③ 보완해야 할 과제 TOP 3

“이 부분만 바뀌어도 출근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신 다섯 가지 과제입니다.

순위	개선 과제	100점 환산점수	직원들의 목소리
1위	식당 환경 개선	52.1점	“9층 식당이 여름에 덥고 우천 시 불편합니다”
2위	회의, 인수인계 및 보고 효율화	56.4점	“형식적인 회의, 긴 인계시간 등은 업무효율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위	분산된 전산 시스템 통합 및 행정 잡무 경감	60.3점	“NAS, 구글, 메디톡 등 업무툴이 통합되고, 전산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개편되면 업무효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조사는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진행했습니다. 주관식 질문(Stop, Start, Continue, Change)에 남겨주신 제안들은 전사 추진 과제와 부서별 실행 과제로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결과를 집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지켜야 할 좋은 문화는 더욱 키워가고, 개선 과제로 채택된 항목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전 부서에 공유하겠습니다.

해나행 가족들이 지키고 싶은 우리의 모습

반갑게 건네는 아침 인사, 메신저 속 다정한 이모지, ‘새로고침’과 ‘텃밭’ 같은 자발적 사내 모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경조사 문화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키워주는 보수교육 지원, 신규 입사자의 적응을 돕는 체계적인 교육, 병원 소식을 전하는 월간 소식지,
장기근속 포상제도도 지속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중, 함께 공유하고 싶은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해나행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라 좋습니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해나행의 지향점입니다.
나아가 직원 서로를 아끼고 함께 가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함께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을 탓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함께 소통하는 문화를 앞으로도 지켜갔으면 합니다.”
“우리 병원 이름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눔과 행복’이라는 이름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9월의 해나행의 이름 모를 친절 직원!

칭찬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모든 직원분이 친절하셔서 마음 편히 검진 잘 받았어요!
특히 채혈실에 단발 웨이브 펌에 나이 좀 있으신 선생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센터 성함은 모르고 앞에서 봤을 때
맨 오른쪽 여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주사실 간호선생님께서 백일해 예방접종 주사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잘해 주셨고 주사도 안아프게 마음 편하게 놔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친절했으나 특히 채혈부분 직원(안경끼고 키가 작으신 분)이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위내경실 그리고 내과 안내하는 직원들께 고맙다고 추천합니다. 모든 직원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채혈실 간호사님(성함은 기억이 안나네요)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말씀도 이쁘게 잘하시고 채혈도 안 아프게 잘하셔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오래 뵈었음 좋겠어요~

채혈하시는 분 진짜 따끔할 틈도 없이 채혈을 해주시고 친절하셔서 좋았어요

유방 촬영실의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진료했는데 거주지를 더 멀리 옮기게되어 더 이상 방문하지 못하게 되서 아쉬워요. 약 6년?을 경기도에서 당일치기로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원장님들이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신게 오래도록 다닌 제일 큰 이유였어요~ 건강하세요!

재활 치료사님들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좋아요. 7층 간호사님들께서도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방센터 신수영 선생님 정기진료받고 있는데, 선생님은 물론 간호 선생님들도 다 친절해요~!
이번엔 기존에 있던 간호 선생님은 한 분만 계시던데 (늘 초음파 담당(?)하여 도와주시는 간호선생님) 그 분도 늘 너무 친절해요!

내분비내과 박미경 선생님 접수를 담당하시는 간호사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이 멀어 오늘 초음파를 꼭 해야 했는데 제 사정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직접 타과에 가셔서 초음파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박미경 선생님 담당 간호사님^^ 항상 미소짓고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 심장내과 담당 간호사님도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께 친절하게 한결같이 응대해주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깊었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은 다른 병원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시경하고 잠이 깰 쯤 와서 이것저것 살펴주신 간호사선생님 참 친절하셨어요♡ 정신이 없어서 성함을 못봤네요.

건강검진 안내?데스크 직원 이름은 생각 안나는데 환자 쪽에서 데스크 보는 쪽으로 맨오른쪽 직원분 참 친절했습니다.

5병동 간호사님들, 간호조무사님들, 간병해주시는 여사님들 모두 환자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내시경실 직원분이 너무 친절히시어 감동

낮병동 담당 간호사, 조무사 선생님들이 매우 친절하시고, 불편사항을 잘 이해해주십니다

원무과 오른쪽 두 번째 여직원 분, 올 때마다 너무 친절해서 좋아요.

접수 간호사님들의 친절한 대화가 가장 좋았습니다~~

원무과 직원들이 친절해 인상이 좋았습니다.

신수영 선생님 간호사분들 엄청 친절하심

원무과 남자 직원님 친절하셨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은 무엇보다 원무과 직원부터 간호사 선생님, 진료 과장님까지 친절 하셔서 제 지인들에게도 늘 추천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이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심장내과 간호사님도 친절해서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심 가득 감사글 남겨주신 고객 분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달의 칭찬 직원들



건강증진팀 **최지윤** 팀장

건강검진 최팀장님 **친절한 상담 검진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검진 팀장님 **너무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재활치료1팀 **오영민 / 박시영 / 박아름** 치료사

재활과 오영민, 박시영, 박아름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 드립니다.
2년이란 긴 세월 속에 사람도 안된 사람을 한 발짝 한 발짝 걷게 한다는것 안 해본사람은 모릅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ㅎㅎ 몸조심하고 건강하세요

재활치료팀 치료사

공유진, 진경수, 오영민, 박지한, 이현성, 박정민, 임예슬, 배현경, 최지용, 최예진 치료사
고마운 분들. 잘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내과내시경센터 **정민정** 과장

소화기내과 내시경 담당 정민정 의사선생님의 자상함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년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편안하였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정민정 의사선생님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내과 정민정 선생님 포함 간호사분들이 친절하고 물음에 상세히 답변해 주신다

내과 간호사 선생님들 친절하시고 특히 정민정 선생님 신뢰가 가서 다시 1년 만에 찾았습니다.

원무팀 **김태완** 팀원

접수할 때마다 항상 웃고 있어서 보기 좋아요~

아침부터 전화로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층생활재활파트 **이선주** 간호사

이선주 간호사 너무 잘하고 너무 친절해요.

한방과 **유명자** 간호사

한방과 담당 유명자 간호사님 항상 친절히 응대해주시고 빠르게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분비내과 **성가연** 간호사

내분비내과를 자주 방문하는데요. **성가연 선생님의 친절함이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는듯 했습니다.**

내분비내과 성가연님 진짜 최고에요. 어르신들이 아무리 귀찮게 해도 한번도 찡그리는거 못봤고
항상 웃으면서 응대해주시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갑상선유방센터 **신수영** 부장

유방센터 신수영선생님 친절하시고 정성껏 초음파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닷

신수영 선생님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지인들에게도 마구 추천했어요 ^^ 늘 감사합니다~~~

신수영 선생님께 진료 봤어요~ 너무 친절하시고 차분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정말 최고입니다!

신수영 선생님. 팀원 모두 칭찬 합니다.

멀어서 조직검사 결과를 유선상 안내 받기로 했는데 신수영 선생님께서 아주 차분히 말씀해주신 덕분에
'암'소식에도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차분하게 조근조근 말씀해주시는 스타일이신지라 뭔가 안정감을 가지고, 믿고 따라갈 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신수영 선생님 추천합니다

신수영원장님 항상 너무 친절하시고 조근조근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신수영샘 너무 감사합니다~♡

유방과 신수영 선생님 친절하셨음

한방과 **김종삼** 부장

한방과 김종삼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따뜻하고 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갑상선유방센터 **백선미** 병원장

갑상선 백선미 원장님 친절하고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도 좋아요~~

항상 환자를 생각해 좋은 말씀해주시는 백선미 원장님 친절함에 감사합니다.

몇 번의 방문을 기준으로 의견을 보태자면 직원 분들의 세심함과 친절함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보통 병원 방문을 해보면 다수의 환자 또는 고객을 상대하느라 심신 피로도가 높아 서비스가 건조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나눔과행복 병원에서는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정성을 다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재방문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의의 전문성과 배려가 공존하긴 쉽지 않은데 백선미 선생님의 의료에 대한 자신감과 배려심에 매우 큰 점수를 드리고 싶고 신뢰가 갑니다.

백선미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안심이 되고 신뢰가 갔습니다.

백선미 선생님께는 진료 받은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늘 진료 받고 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여운이 길게 남아요.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

항상 열정적이고 진심을 다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갑상선 부서의 백선미 원장님 건강하세요!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백선미 원장님 진료부터 시술까지 아주 친절하십니다.

심장내과 **박민아** 과장

병원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픈 부위에 맞춰 어느 병원에 무슨 과를 가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엉뚱한 부서에 접수 할 수도 있고, 원인 모를 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병원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간 병원에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장내과 박민아선생님과 간호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분비내과 **박미경** 부장

내과 박미경 선생님, 간호사님 친절한 설명과 대응에 감사합니다.

내분비내과 박미경 부장님과 담당간호사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설명 및 대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과내시경센터 **남지현** 과장

내과 남지현과장님 약처방을 아주 잘해 주네요.

첫 방문이었는데 내과 남지현 선생님이 참 친절하고 자상해서 몸은 아팠지만 위로가 되었음

내과내시경센터 **류승훈** 부장

병원 곳곳에서 아~~ 친절 교육을 첫번째로 확실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과에 류승훈 부장님은 정말 친절하셨고 환자가 확실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앞에 계시는 간호사님도 정말 끝까지 확실하게 친절히 해주셨습니다.
주병원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과 류승훈 선생님 친절하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음

갑상선유방센터 **김현수** 부장

유방 김현수선생님 늘 꼼꼼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수 부장님 정확하게 잘 보신다고 해서 소개 받았습니다.
몇 번 진료받다 보니, 신뢰가 쌓여 지인 2명 소개하고 진료를 받았다해서 느낌이 어떻냐고 물어보니
다들 좋은 평가해주시고 과잉진료 안해서 제일 맘에 든다고 하네요.

내과내시경센터 **고인영** 부장

고인영 선생님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십니다. 만족합니다.

5층병동지원인력 **박상진** 주무

5병동 친절직원 박상진 간사님 다리도 불편한데 순간순간 늘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35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꼬지어묵우동

더없이 날씨가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괜히 입맛도 좋아지고,
평소보다 맛있는 음식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번 달 메뉴 선정의 주인공은
“애기 입맛이라 어묵이 잔뜩 들어간 우동이 먹고 싶어요!”라는
환자분의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기 입맛이라니요.
어묵 좋아하는 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팀이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꼬지어묵우동이지만,
꼬지어묵 하나만 들어간다면 조금 섭섭하겠죠?

쫄깃한 꼬지어묵은 기본!

속이 알찬 유부주머니에 유부야채말이,
부드러운 찐어묵과 흑곤약, 맛살 고명까지.
우동 한 그릇에 어묵 친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면발 한 젓가락 먹고, 어묵 한 입!
유부주머니도 건져 먹고, 꼬지어묵도 한 입!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니
면을 먹으러 온 건지, 어묵을 먹으러 온 건지
잠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쫀득한 딤섬까지 곁들이니
한 그릇의 즐거움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환자분의 작은 요청에서 시작된 이번 메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일,
어쩌면 그 소소한 즐거움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드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닐까요?

앞으로도 영양팀은 여러분의 입맛에 귀 기울이며
매일의 식사에 작은 즐거움을 더해 가겠습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k-직장인의 성장 일기 5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막내라는 이름표를 떼고
처음으로 사수가 되어
후배에게 일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늘 따라다니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선배가 되어야 할까?'

후배에게 사랑받는 선배?
존경받는 상사?
아니다.
욕심이다.

그럼 적어도
욕을 덜 먹는 직장 상사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나름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일을 잘해야 하나?
당연합니다.

일을 빨리해야 하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후배의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줘야 하나?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너무 감싸주면 만만한 상사가 되고,
너무 엄격하면 꼰대가 됩니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습니다.
상사라는 자리는
참으로 섬세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직장에서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데도
자기 일을 묵묵히 잘하고,
문제가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 감정을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프로'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직장에서는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조용히 해내는 사람에게
이상하게 믿음이 갑니다.

감정에 따라
오늘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고,
일이 꼬여도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차분하게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저는
일이 꼬이면 표정부터 꼬이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머릿속으로 이미 퇴사를 세 번쯤 하고,

후배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다가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건가?'
'얘는 이해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둘 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아직도 성장 중인 직장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좋은 상사는 아니라는 것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열린결말 여덟 번째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08

혼자서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감정보다 해결을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책임을 묻기보다 이유를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힘든 감정을
굳이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일만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프로답게 느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감정 하나도
적당히 잘 데리고 다니는 사람.

일이 꼬여도
같이 있는 사람까지 꼬이게 만들지 않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감정과 이성을 사이좋게 데리고 다니는 날보다
서로 먼저 집에 가겠다고 싸우는 날이 더 많지만요.

그래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형 상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가끔은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굳이 저 말을 했어야 했나?'
혼자 복기할 때도 있고,

참을 수 있었는데
참지 못했던 날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직장생활 2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 선배처럼 일하고 싶어요."
라는 말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저 선배랑 같이 일하면 좀 편해요."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완벽해서 존경받는 사람보다
부족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괜찮은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완벽한 상사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제보다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웃어보려고 합니다.



50세 아빠의 한국사 도전기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올해 5월. 2017년 6월부터 책을 읽고, 책 속에서 발견한 좋은 문장을 따로 정리한 지 만 9년이 되던 올해 5월. 그동안 읽은 책을 세어보니 딱 300권이었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 궁금해 오래전부터 엑셀에 정리해 놓은 독서 리스트를 펼쳤다. 한 권씩 훑어보다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사 관련 책이 무려 10권이 넘었다.

- 외우지 않고 통째로 이해하는 통한국사 1
- 외우지 않고 통째로 이해하는 통한국사 2
-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 역사의 쓸모
- 일생일문
- 역사 e 1 (세상을 깨우는 시대의 기록)
- 하룻밤에 읽는 한국 근현대사
- 최소한의 한국사
- 요즘역사 근대
- 벌거벗은 한국사 (권력편)
- 벌거벗은 한국사 (조선편)
- 다시 역사의 쓸모
-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

읽을 때는 재미있는데 책장을 덮고 나면 마법처럼 사라지는 내용. 내겐 한국사가 그렇다. 학창 시절 국사와 세계사 성적에 관한 에피소드는 이미 예전 브런치에 썼었지만, 정말 형편없었다. 그런 마법은 해를 거듭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50세에 입문하고 나니 사라지는 속도만 더 빨라졌다. 그렇게 애초 독서의 취지였던 '좋은 문장 발견'과는 꽤나 거리가 먼 한국사 탐독은 내게 딴길로 새기 충분히 매력적인 외도였다.

그리고, 같은 5월 말 사내 독서모임에 참석했다. 이달의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의 감동과 떨림을 다시 소환하고자 선정한 한강 작가의《소년이 온다》였다. 다행히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 조금은 편하게 5월을 보낼 수 있었다. 각자 책에 대한 느낌과 미리 준비해 온 발췌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자연스레 우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비극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열변을 너무 많이 토했던 탓일까? 하지 말았어야 할 얘기를 하고 말았다.

"저 이 기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전해 보겠습니다!"

뜨아.

내 입으로 뱉어놓고도 살짝 당황스러웠다. 평소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책도 여러 권 읽었으니 못 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6월부터 두 달 정도 바짝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다. 다가오는 8월 9일에는 제79회 시험이 있었고, 접수는 한 달 전부터 가능했다. 그러니 6월에 내가 준비할 것은 한국사 교재와 인터넷 강의였다.

최태성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는 심화과정 강의가 친절하게 올라와 있었다. 강의당 평균 50분에서 1시간 정도. 1강부터 40강까지 무려 40개의 강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하나씩 듣기로 했다. 나는 여전히 새벽형 인간이라 오전 5시가 되면 눈을 떴다. 그렇게 하루에 한 강의씩 시청해 나갔다. 구석기, 신석기,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까지는 거침없어 보였다. 고려로 들어가니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고, 조선에 들어가니 뭐 앞에 것은 기억도 안 났다.

그래도 일단은 40강 완강에 목표를 두고 끝까지 시청했다. 40강을 다 듣고 나니 나는 이미 뭔가를 이룬 듯한 착각과 성취감에 빠져 있었다. 남은 기간은 강의 때 메모해 둔 요약노트랑 기출문제만 풀면 거뜬하게 자격증을 딸 수 있을 줄 알았다.

참고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심화과정과 기본과정이 있다. 심화는 1~3급이고, 기본은 4~6급이다. 심화과정은 동일한 문제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1급, 70점 이상이면 2급, 60점 이상이면 3급이다. 그리고 60점 미만이면 아시다시피 불합격이다. 나는 당연히 심화과정을 접수했다. 머릿속에는 내심 1급을 꿈꾸고 있었고, 적어도 3급은 따겠지 하는 나 자신만의 하한선을 그어놓고 있었다.

시험 전날, 직전 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느낌이 쎄했다. 53점과 61점.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다. 분명 강의도 다 들었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영 신통치 않았다. 그래도 보통 시험 당일에는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증명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을 믿었다. 그래, 60점은 넘겠지. 3급은 따겠지 싶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쉰두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시험 당일, 아침 일찍 밥을 챙겨 먹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보통 토요일에 치르는 시험인데 이번 제79회는 일요일 시험이라 접수 경쟁부터가 치열했다.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영도 쪽 학교에 겨우 접수할 수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시험이라는 걸 치렀다. 알 듯 말 듯한 문제들이 빗발쳤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선택지의 오답을 하나씩 그어가며 무사히 시험을 마쳤다.

시험지는 들고 나올 수 있었다. 시험시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브에는 벌써 가답안이 공개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를 잠시 세웠다. 스마트폰으로 가답안을 띄워놓고 시험지를 펼쳤다. 1번부터 하나씩 정답을 맞춰봤다.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땡. 느낌이 쎄하다.

처음에는 동그라미 하나에 웃었다가, 엑스표 하나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웃을 일이 별로 없었다. 차량 에어컨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괜히 시험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혹시 내가 체크한 답이 다른 건 아닐까? 정답이 잘못 공개된 건 아닐까? 그럴 리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가 있다. 서둘러 맞힌 동그라미의 점수를 합산해 봤다.

57점.

우와, 미치겠다. 내가? 내가 불합격? 3점짜리 한 문제만 더 맞혔으면 60점으로 3급을 딸 수 있었는데! 내가 불합격? 두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집에 아내랑 애들한테 뭐라 하지! 오랜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왔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다. 괜히 한국사 시험 친다고 떠들어대서 이 모양 이 꼴이 난 것도 부끄러웠다. 미쳤지, 미쳤어. 이런 부정적 감정은 오후 내내 지속되다가 저녁에 먹은 술과 함께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아이고, 이게 뭐라고.

다음 날 출근을 했다. 공공연히 시험 친다고 떠들어댔던 단톡방에는 조용히 떨어졌다는 얘기만 했다. 아쉬움과 위로의 말을 몇 번씩 주고받은 후에야 이야기는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국사 관련 책을 10권 넘게 읽었고, 새벽마다 강의를 듣고, 두 달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는 불합격이라니. 단순히 자격증 하나를 얻지 못했다는 아쉬움보다는 그동안의 시간이 부정당한 것 같은 마음이 더 컸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3점짜리 한 문제를 더 맞혀서 60점으로 합격했다면 어땠을까? 분명 신나서 가족들에게 자랑했을 것이고, 3급 자격증을 받고 나면 한국사 공부는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57점을 받았다. 3급조차 따지 못한 것이다.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정작 내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만들어 버린 셈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해볼 것인가?

>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역사 속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사는 길일 거예요.
> _최태성《다시, 역사의 쓸모》(프런트페이지)

어쩌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할 만한 나만의 작은 역사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실패했다는 기억으로 끝내기보다,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했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었다. 마음속은 이미 제80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엔 조용히 말이다.



그렇게 나는 제80회 시험을 준비했고, 지난 두 달보다 더 타이트하게, 더 짜임새 있게 공부해 나갔다. 내게 가장 어려웠던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부터 달달 외우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번 들었던 강의라 그런지 처음에는 조금 수월해 보였다. 하지만 수월한 것도 잠시. 외우면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면 또 잊어버렸다. 특히 9월 초 휴가를 다녀온 뒤에는 그동안 잘 외웠던 내용까지 다 까먹어서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쉰두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새벽에 강의 보고, 출퇴근 차 안에서 강의 듣고, 저녁에 다시 정리했다. 시험을 1주일 앞둔 시점부터는 도서관에도 갔다. 퇴근 후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문제집을 펼쳤다. 조용한 열람실에는 책장 넘기는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연필 소리뿐이었다. 형광펜으로 색칠한 요약노트는 갈수록 알록달록해졌고, 기출문제에는 동그라미와 엑스표가 번갈아 쌓여갔다. 시계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문제집을 펼쳤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승진에 필요한 자격증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다. 그렇게 나는 또 미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처음에는 강의 40개를 다 들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면, 이번에는 문제 하나를 맞힐 때마다 내가 왜 그 답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틀린 문제는 다시 찾아봤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어제 외웠던 걸 오늘 까먹는 마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다음 날 다시 외웠다. 까먹으면 또 외우면 되니까.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는 매일 기출문제 한 회차씩을 풀었다. 처음에는 아슬아슬했던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70점을 넘더니, 80점을 넘는 날도 생겼다.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한국사의 조각들이 이제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시 시험 날. 이미 한 차례 낙방의 경험이 있었던 터라 조금 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다. 전 회차와는 달리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답안도 더 잘 눈에 띄었다. 이 정도면 70점은 넘기겠는데? 2급만 딴다면? 아니, 혹시 1급까지? 처음엔 3급만 따도 좋겠다던 마음이 어느새 1급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사람 욕심이란 게 참 그렇다.

그렇게 최종 OMR 답안을 검토하다가 49번 문제를 잘못 체크한 것을 발견했다. 수정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답을 고친 후에야 안심하고 교실 앞문을 빠져나왔다. 이번 시험은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학교에서 치렀다. 마침 중학교 3학년 큰아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지난번에는 영도까지 차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아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뭔가 좋은 예감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답안이 공개되었고, 아내와 함께 채점을 시작했다. 동그라미가 늘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땡보다 동그라미가 훨씬 많았다. 심지어 31번부터 50번까지는 전부 다 맞히는 반전까지 보였다. 결과는 93점. 50문제 중 단 3문제만 틀렸다.

1급이다.

우와~ 대박!

지난 두 달간의 노력이 정말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아니, 정확히는 첫 시험을 준비했던 두 달까지 합쳐서 네 달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57점에서 93점. 36점이나 올랐다. 물론 그 사이 내 머리가 갑자기 좋아졌을 리는 없다. 다만 전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것을 알게 되었고,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을 다시 공부했을 뿐이다. 그렇게 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두 번의 도전 끝에 1급이라는 결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만약 앞서 57점이 아니라 60점을 받고 3급에 머물렀다면, 나의 한국사 도전은 그때 멈췄을지도 모른다. 두 달 공부해서 3급 땄다고 나름 만족하며 살았을 것이다. 한국사 관련 책 10권 넘게 읽었으니 이 정도면 됐다며 혼자 위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3점이 부족해서 불합격했다. 그 3점이 나를 다시 책상 앞에 앉혔고, 또 두 달 동안 한국사에 빠져 살게 했다. 그리고 결국 93점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 내게는 57점이라는 실패가 오히려 더 값진 1급을 만들어준 셈이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쉰두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 우리의 인생도 한 사람의 역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일을 마주할 때도 있고, 바라는 결과가 마음만큼 빨리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연이나 요행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작은 날갯짓이 되어줄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나의 작지만 성실한 움직임이 언제 어디서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 _최태성《다시, 역사의 쓸모》(프런트페이지)

우리의 인생도 한 사람의 역사라면, 이번 한국사 시험은 내 역사에 작지만 재미있는 사건 하나로 남을 것 같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자격증일 수 있지만, 내겐 50세에 도전해서 한 번 떨어지고, 다시 도전해 얻어낸 작은 성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새벽마다 들었던 강의 한 편, 출퇴근길 차 안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설명 한마디, 도서관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던 시간들이 결국 작은 날갯짓이 되어준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어디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말이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한다. "한국사 1급 없으면 한국사를 논하지 마라!" 마침 중학교 3학년 큰아들의 학교 시험범위에 조선시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아빠 한국사 1급 있다 아이가~"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어쩜 아빠 혼자 신이 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1급이 있으니까.

1급을 따고 출근하는 다음 날 아침. 늘 차량 모니터에서 재생되던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가 그날은 재생되지 않았다. 네 달 동안 익숙했던 목소리 대신 자동차 안에는 오랜만에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렇게 4개월 만에 한국사가 아닌 일반 책을 읽는 요즘이다. 다시 책 속에서 좋은 문장을 찾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따로 적어놓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물론 내 머릿속에 들어온 한국사가 언제 다시 희미해질지는 모른다. 어쩜 몇 달 뒤에는 개화기의 복잡한 사건들이 또 뒤죽박죽 섞일지도 모른다. 고려 왕들의 이름이 헷갈리고, 조선시대 붕당정치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이제 한국사 책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예전처럼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 번쯤은 제대로 공부했고, 나름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한국사 1급을 땄으니까. ㅋㅋㅋ





온길의료재단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드로잉 RUN&WALK

달리고,
걷고,
그리는 우리의 길,
해운대에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GPS로 그리는 우리만의 그림,
건강한 걸음이 따뜻한 이야기가 되는 시간



참가 안내

일 시 2026년 10월 30일(금) ~ 11월 30일(월)

장 소 전국 어디든 가능

코 스 1일 기준 (최소 5KM부터 인정)

참가 방법

개 인

- 해당 기간 내에 **그림(자유 주제)**을 완성하여 제출
- 사전 접수 없이 진행
- 모든 미션 취합 후 전 직원 투표 진행하여 상위 5명 선정

단 체 (6인)

- 해당 기간 내에 제시된 단어를 완성하여 제출
- 제시 단어 : **"온길의료재단"**
- 단체 구성 후 선착순 제출 1팀 선정



부산의 길 위에,
건강한 발걸음으로
온길을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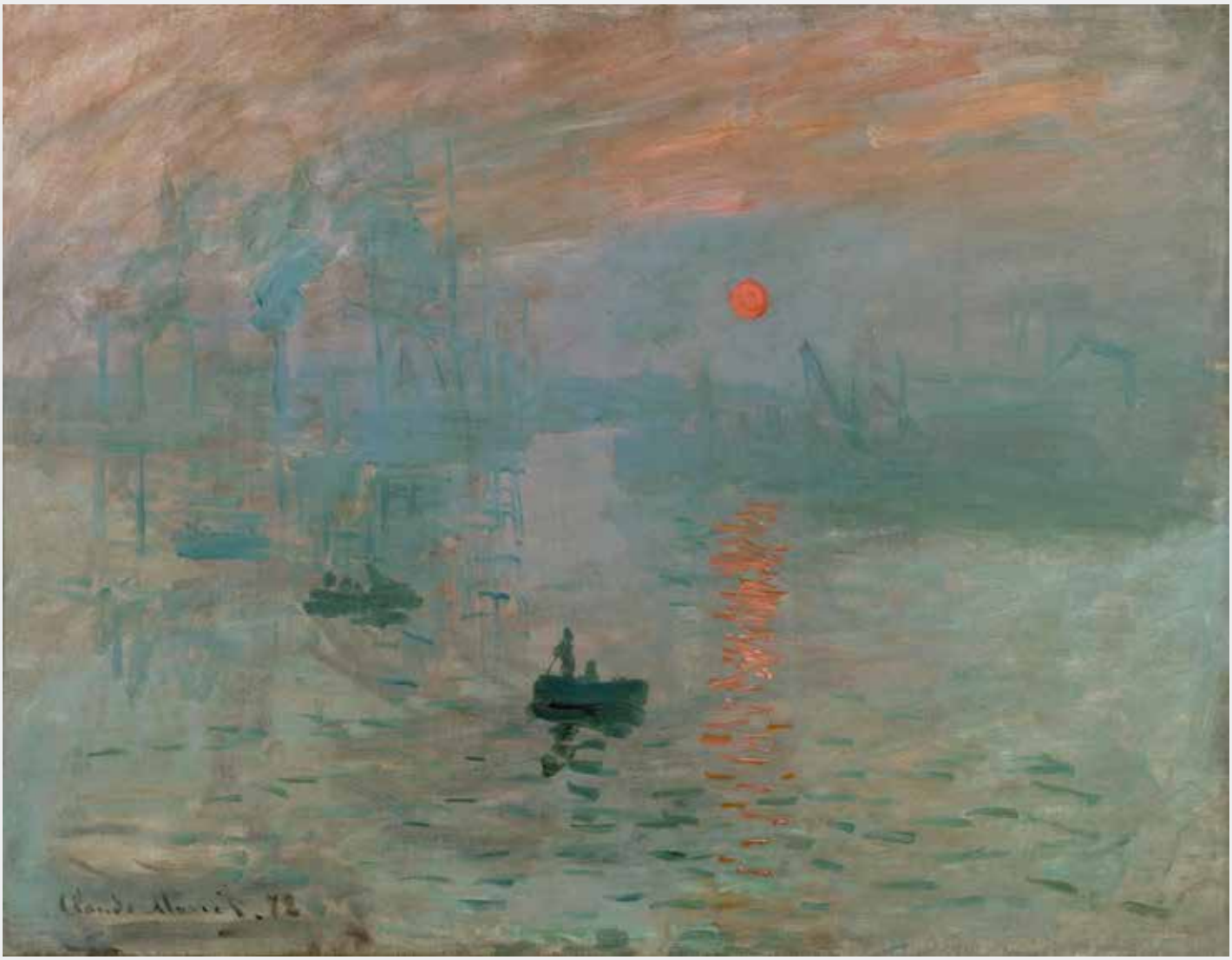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원고모집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는 공간으로 운영중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사진 한 장, 짧은 글 한 줄도 모두 환영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직접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께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홍보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료에 해당하는 사은품은 당월 응모량 및 글 내용을 반영하여
브랜딩실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클로드 모네 Claude Monet
《인상, 해돋이》 Impression, Sunrise, 1872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48 × 63 cm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Musee Marmottan Monet, Paris, France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54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6년 10월 30일
편집인 브랜딩실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